

‘불패 장수’ 이성계, 아내 앞에선 공처가였다

조선왕 시크릿 파일

박영규 지음



조선의 역사는 대체로 친숙하다. 또한 조선의 왕들 또한 낯설지 않다. 지금까지 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단골 소재로 다뤄져 왔기 때문이다. ‘뿌리 깊은 나무’(세종대왕), ‘이산’(정조), ‘왕의 남자’(연산군), ‘광해’(광해군)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조선의 왕에 대해 아는 것은 지극히 일부뿐이다. 공적인 사실 외에는 그들의 내밀한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 왕도 사람이다. 그들 또한 보통의 인간처럼 ‘희로애락 오욕정’이라는 다양한 감정과 부족한 부분이 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조선 왕은 잊어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주인공은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의 저자 박영규. 그가 펴낸 ‘조선왕 시크릿 파일’은 왕들의 업적이 아닌 인성과 사생활에 초점을 맞췄다. 익히 알고 있던 조선 왕들의 강인하고 포용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색다른 면이 다.

다음의 대화를 예로 들어보자. 누구의 대화일까.

“공부는 안 하고 견달달하고 어울려서 뭐 하는 겁니까?”

“야, 누가 너하고 놀자고 그랬냐? 왜 따라다니면서 간섭이야!” “웃은 그게 뭐예요? 외모에 신경 쓸 시간에 마음부터 닦아야죠.” “아는 거 많은 너나 도 많이 닦아라. 나는 노는 걸로 쪽 나가려다.”

예기를 나누는 이들은 ‘범생이’ 동생과

‘견달’ 형이다.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20세 양녕대군과 17세 충녕대군(세종)이다. 양녕대군이 여자 뒤쪽무니나 쫓아다니며 왕실 망신을 시키자 충녕대군은 집안 노비를 동원해 감시를 했다. 결국 범생이 동생은 난봉꾼 형을 밀어내고 왕위를 계승해 위대한 성군이 됐다. 바로 세종대왕이다. 이처럼 저자는 업적 이전의 사적인 부분, 일테면 인품이나 사생활을 들여다본다.

태조 이성계는 한 번도 패한 적 없는 위대한 장수, 과감한 혁명가로 묘사된다. 그러나 그런 이성계도 자식들 앞에선 팔불출이였다 한다. 저자에 따르면 아들 자랑에는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젊은 아내의 말에는 꼼짝 못하는 공처가이기도 했다.

‘주요순 아걸주’. 즉 ‘낮에는 요순, 밤에는 결주’라는 별명이다. 다음 아녀 성종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낮에는 중국의 최고 성군인 요순 임금 같은 성군인데, 밤만 되면 걸왕과 주왕처럼 성행위에 몰입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묘호를 살펴보면 왕의 삶과 유사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한다.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가진 중종(中宗)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그는 중종의 도를 실현한 군주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행동 방식이 다른 다중인격자 성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또한 중종의 아들 명종(明宗)은 ‘밝을’ 명(明) 자를 쓰는 데 실제로는 ‘울’ 명(鳴) 자를 쓰는 것이 나왔다고 한다. 조선



불패의 장수 태조 이성계. 아들 자랑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팔불출이였고 젊은 아내의 말에는 꼼짝 못하는 공처가였다. 국보 제 317호 태조 어진. <광주일보 자료사진>

왕 중에 이름난 마마보이였다는 것이다. 재위 기간 중 모후 문정왕후 때문에 눈물로 보낸 세월이 많았다.

영조는 ‘차별군주’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자녀들을 많이 차별했는데, 심지어 좋아하는 자녀와 싫어하는 자녀를 한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했다.

물론 저자는 자신의 분석과 평가가 모두

옳다고 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껏 조선 왕들에게 들이댔던 업적이라는 잣대를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조언한다. “그들이 감춰놓은 비밀이 역사의 진실에 다가서는 열쇠라면 그것은 결코 비밀로 남아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옥당복스·1만7500원>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주인공 괴롭히는 캐릭터 ... 그들은 왜 악당이 되었나

디즈니의 악당들 1~3

세레나 발렌티노 지음, 주정자 외 옮김



백설공주, 미녀와 야수, 라퐁젤 등 애니메이션으로 구현된 다양한 디즈니 캐릭터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한몸에 받아왔다. 작품은 대부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지만,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숱한 방해 세력이 존재한다. 그런 캐릭터를 볼 때면 가끔 궁금해지곤 한다. 백설공주를 괴롭힌 질투와 집착의 캐릭터 여왕은 왜 백설공주를 그렇게 미워할까, 야수는 왜 마법에 걸렸을까 등등.

디즈니가 기획하고 만화가이자 소설가인 세레나 발렌티노가 쓴 ‘디즈니의 악

당들’ 시리즈는 애니메이션이 주목하지 않은 ‘악당’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흥미로운 작품이다.

첫번째 권 ‘악한 여왕’은 1937년 개봉한 디즈니 최초의 극장용 애니메이션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속 여왕이 주인공이다. 백설공주의 계모인 여왕은 공주의 미

모를 질투해 독이 든 사과를 먹여 그녀를 죽인다. 책은 여왕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기 이전의 삶에서부터 시작해 여왕 캐릭터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겨울 장인의 딸로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에 목말랐던 여왕의 삶에 주목하며 여왕과 백설공주의 관계를 흥미롭게 재해석했다.

두번째 권 ‘저주받은 야수’는 저주를 받아 흉측한 야수가 된 왕자와 마음씨 고운 아름다운 아가씨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디즈니의 30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1991)를 소재로 한다.

저자는 짐승처럼 변해버린 야수가 어떤 이유로 저주에 걸렸는가를 질문에서 소설을 시작한다. 준수한 외모와 왕자라는

자위로 모든 여성의 호감을 샀던 그는 키르케라는 여성에게 사랑의 상처를 입힌다. 이 사건은 누군가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고 결국 저주가 시작된다.

세번째 권 ‘버림받은 마녀’는 ‘인어공주’에 등장하는 마녀 우르슬라가 주인공이다. “사람이 되고 싶다면 네 영혼과 목소리를 내어줘”라고 유혹하는 그녀는 왜 인어들과 적대 관계가 됐는지 그녀의 아픈 과거를 통해 밝혀낸다.

이번 시리즈는 총 9권으로 기획됐으며 앞으로 ‘잠자는 숲속의 공주’ 속 요정 말레리센트의 이야기를 그린 ‘초대받지 못한 요정’, ‘라퐁젤’의 가짜엄마 고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탐욕스러운 가짜 엄마’ 등이 출간될 예정이다. 모든 작품에는 세 마녀 루신다, 루비, 마사가 등장해 또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간다.

<리꿈·각권 값 1만3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차별의 언어=왜 한국인은 ‘우리’라는 표현을 과도하게 사용할까? 왜 이탈리아 국수는 ‘스파게티’라고 부르면서 베트남 국수는 ‘쌀국수’라고 부를까? 왜 ‘다문화’와 ‘타문화’를 동의어처럼 사용할까? 인문 작가 장 함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단어들 속에 담겨 있는 단일민족의 허상과 그에 따른 차별의식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 속에 사는 우리가 어떤 미래를 지향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글담·1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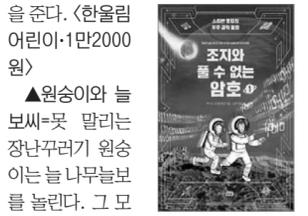
▲미첼 레스닉의 평생유치원=지은이 미첼 레스닉은 연령을 불문하고, 모두가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창의성은 예술 활동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학습이 가능한 분야다. 개인의 창의성은 학습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학부모와 교육자들이 어떻게 어린이들을 교육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다산사이언스·1만6000원>
▲머신 플랫폼 크라우드=디지털 시대 변화의 동력을 기계(머신), 플랫폼, 군중(크라우드)이라고 말한다. 기술의 대변혁 앞에서 우리는 마음과 기체, 생산물과 플랫폼, 핵심 역량과 군중, 이 세 가지 힘의 균형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MIT의 앤드루 맥아피와 에릭 브리울프슨 교수는 미래 비즈니스를 지배하는 힘이 무엇인지 정체를 밝히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창림출판·1만8000원>
▲까달은 고양이=시모우집 ‘달아, 외로운 때는 시를 읽으렴’으로 독자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신현림이 직접 고양이와 그리고 글을 썼다. 이 책은 손에 잡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인 ‘소확행’을 찾는다는 내용을 담은 그림에세이다. 취직도 연애와 결혼도 힘든 현실에서 손에 확실하게 잡혀지는 행복감이 중요하다. 지쳐 힘들거나 막막할 때 더 멀리 바라보고 하고 싶은 것에 대한 통찰을 일깨워 주는 글로 채워졌다. <사과꽃·1만3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조지와 풀 수 없는 암호 1, 2=이 책은 ‘스티븐 호킹의 우주 과학 동화’ 시리즈의 하나로 현대 물리학계의 거장이자 천재 과학자라 불렸던 스티븐 호킹이 살아 생전 유일하게 펴낸 어린이를 위한 우주 과학 동화이다. 4부 ‘조지와 풀 수 없는 암호’는 호킹이 별세하기 4년 전에 출간된 책으로, 한국에서는 처음 소개된다. 방학 숙제를 위해 코스모스가 연 우주의 문으로 나온 조지와 애니는 어찌된 일인지 폭발 직전의 얼음 화산 꼭대기에 도착해 위험에 처한다. <주니어RHK·1만1000원>

▲도망쳐, 늑대=평화로운 마을에 늑대가 나타났다. 처음 늑대를 본 황새는 할레백떡 달려가 “저기 늑대가 있어!”라며 늑대의 등장을 알린다. 늑대를 보러 간 황새와 파랑새가 외친 요란한 소리에 생쥐, 돼지, 거북이도 당당히 외치기 시작한다. 도망치던 동물들은 늑대와 정면으로 마주치고 만다. 동물 친구들은 무사할 수 있을까? 프랑스 작가 마티의 모데는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색과 그림, 반전이 어우러진 이야기로 웃음과 교훈을 준다. <한울림 어린이·1만2000원>
▲원숭이와 놀보=웃 말리는 장난꾸러기 원숭이는 놀 나무놀보를 놀린다. 그 모습을 본 부엉이 아저씨는 “놀보 씨네 이 숲의 어른”이라며 원숭이를 혼낸다. 그러나 원숭이는 장난을 계속하다 나뭇가지를 잘못 잡아 웅떨어지고 만다. 원숭이를 혼내려는 동물들 사이에서 나무놀보는 원숭이의 팔을 잡고 구해준다. 나무놀보와 원숭이는 친한 친구가 된다. <키른도토리·1만3000원>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텐,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롤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제주흑돼지 전문점 꽃담 동구 방실로 48-1 (법원 뒤편) 제주흑돼지 삼겹살 제주 오겹살 (영업시간 오후3시~) ☎062)233-9992	초대 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메타루이펜션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377-1번지 (담양프로방스 옆) 편백과 황토로 지은 자연건강 숙소 가족탕 겸함, 예약받습니다. ☎061)383-2698, 010-3603-2698	루팡닭강정 북구 용두동 우방아이유셀상가 매운 맛, 달달한 맛 개인·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010-3844-7145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시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시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하얀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등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컬러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정어), 샤브샤브 전문점 바다정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운점)·양명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현승 ☎062)222-6866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 ☎010-3633-2790	셋강다슬기 서구 풍곡로 12번길 11(풍암고 정문앞) 다슬기수제비 탕, 다슬기토장탕, 다슬기탕 오리백숙, 다슬기 두부전골 단체손님환영 대표 김병환 ☎062)233-3636	해피니스요양병원 북구 삼정로 142 (두암동, 청야맨션 건너편) ☎062)251-8400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